

연곡사는 지리산 반야봉 법왕대 아래 연곡동에 있어 연곡사라 불리운다. 이른바 피아골 입구에 있는 유서깊은 사찰로 대한불교 조계종 제 19교구본사인 화엄사의 말사이다.

연곡사의 초창과 창건주에 관해서 정확한 역사적 기록은 없는 실정이다. 다만 만우(曼宇) 정승겸(鄭乘겸) 일제시대 편찬한 『智異山華嚴寺蹟』의 부록으로 『燕谷寺寺蹟』이 실려 있어 동 사찰의 시대적 변화를 살피는데 많은 참고가 된다. 이 사적에 의하면 신라 정통왕 때 인도스님 연기조사가 창건하였으며 그의 만년에 세상을 피해 살기위한 장소로 지었다고 한다. 연기는 조선시대 후기 및 일제시대 연곡사 등의 사찰 창건주로 이해되어 오다가 1979년에 8세기 중엽 화엄사의 창건주로 새롭게 인식되면서 그 실체를 인정받기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화엄사와 가까운 거리에 놓여 있는 연곡사도 전해오는 기록대로 화엄사의 창건주였던 연기가 8세기 중엽 경에 창건한 사찰로 여겨진다.



연곡사 전경



연곡사 일주문

신라말부터 고려초기에 연곡사는 화엄종사찰에서 선종사찰로 사찰성격이 바뀌어진 것으로 보인다. 고려 경종 4년(979) 현각선사탑비(보물 152호)와 국보 53호인 동부도 국보 54호인 북부도 보물 151호인 3층석탑이 모두 신라말에서 고려초기에 조성되었던 것으로 선종계통의 불교문화가 꽃을 피운 흔적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연곡사는 고려후기 및 조선전기의 기록이 전무하여 그간의 사정이 어떠하였는지 살필 수 없어 아쉽기 그지없다. 선조대의 왜란은 사찰에 막대한 피해를 안겨주었는데, 연곡사도 예외는 아니었다. 선조 31년(1598) 4월 10일 왜적 사백여명이 하동악양을 거쳐 지리산의 쌍계·칠불·연곡사 등 사찰에까지 들어와 살육을 자행하고 불을 지르는 등 갖가지 만행을 자행하였다. 왜란으로 불타버

린 연곡사를 인조대 소요대사 태능(1562-1649)이 중창하였다. 소요 태능은 연곡사를 중창하고 상당기간동안 이곳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여진다. 소요태능은 서산대사 휴정의 제자로 그 문하 4대파 중 1파를 이룰 정도로 유명한 승려이다. 소요대사는 속성(俗性) 오씨(吳氏)이며 담양인으로 13세에 출가하여 부휴선사에게 경전을 배우고 서산회하에서 청정본원의 이치를 깨달아 선을 중시하는 가풍을 충실히 전수하였다. 서산과 사명등이 대외적인 활동을 하고 있을 무렵, 소요대사는 편양삼기(鞭羊수機)와 함께 서산으로부터 물려받은 불법을 충실하게 발전시키는데 진력하고 있었다. 효종 6년(順治 12년:1655) 연곡사에서 석가여래성도기(釋迦如來成道記)의 목판을 개판(改版)하였는데 이것은 조선후기의 강회(講會)와 관련된 중요한 사실로 보여진다. 한편 영조4년(1728) 소론파 이인좌가 집권 노론세력에 항거하여 반란을 일으켰을 때 호남지역을 장악하기 위해 승려출신인 술사(術士) 송하(宋賀)와 승려 대유(大有)가 쌍계사와 연곡사를 거점으로 삼아 지리산의 산적 수천명을 모아 태백산·덕유산·변산 일대의 명화적들과 연합하여 이인좌의 반란에 가담하였는데, 이인좌의 반란이 실패하자 지리산에서 종적을 감추었다고 한다.

유형
문화지리산
국립
공원

시찰

연곡사



서부도(소요대사 부도)



대웅전

영조 21년(1745) 10월 21일 봉상사(奉常寺)에서 삼남읍의 분정(分定) 요목지례(要目之例)을 혁명(革命) 연곡사를 주재봉산(主材封山)으로 삼아 밤나무를 잘 가꾸도록 하자는 소청(所請)을 하자 왕이 허락하였다고 한다. 이로 말미암아 왕가의 신주목(神主木)을 봉납하게 되자 연곡사 주지가 도제주(都提都)가 되었을뿐만 아니라 지방관 향리들의 경제적 침탈에 벗어 날 수 있게 되었다. 정조 3년(1799) 동파당(桐坡堂) 정심선사(定心禪師)가 대웅전을 중건하였다.

유형
문화

지리산
국립
공원

사찰

항일 의병장 고광순은 고광수(高光秀), 박선덕(朴贊德), 고광훈(高光勳) 등과 함께 여러 차례 일제와 맞서 싸워 승리하였다. 그러나 불행하게 일병의 야간기습을 받아 패전하고 고광순은 10월11일 연곡사 옆에서 전사하고 말았다. 이때 연곡사도 의병 활동의 근거지로 왜병들에게 방화를 당했다. 이 무렵 연곡사를 포함한 지리산 일대의 사찰들을 항일 의병활동의 독립기지가 되어 항일 독립 운동사의 중요한 의의를 가지게 되었다.

연곡사



의병장 고광순순절비



1972년 동부도 모습



삼층석탑



현각선사탑비

구례군 문화관광해설가 양성교육. 전라남도여성회관.정정신. 도서출판 무진. 2004. P. 69-71